

한화, 태양광 활용 중국 사막화 방지

서부 닝시아 자치구와 협약 체결 ... 조림지 855ha에 전력 80kWh 공급

한화그룹이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중국의 사막화 방지 사업에 나선다.

한화그룹은 중국 서부 닝시아(寧夏) 자치구와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을 통한 사막화 방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14일 발표했다.

사막화 방지 협약에는 한화차이나 금춘수 사장과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닝시아 자치구 당국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한화그룹은 닝시아 지역에 무상으로 태양광 설비를 만들어 제공하고 한다. 한화솔라원이 태양광 모듈을 제공하고 한화솔라에너지가 발전설비를 시공할 예정이다.

발전설비는 시간당 80kW의 전력을 생산해 855ha의 조림지에 필요한 묘목을 키우는 양묘장에 공급한다.

한화그룹은 중국 프로젝트가 태양광 에너지를 사막화 방지에 활용하는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사막화 방지 활동이 주로 나무심기 등 일회성 행사 위주로 진행됐지만, 태양광 사업은 양묘장에 필요한 전력을 무공해 에너지인 태양광으로 제공해 지속가능한 사막화 방지 활동을 펼칠 수 있어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UNCCD 관계자는 “태양광 설비 지원을 통한 사막화 방지 활동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릴 UNCCD 10차 총회에서 모범사례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춘수 사장은 협약식에서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통해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사업장 구축 및 친환경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중국에서 친환경기업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14>